



자산전략 주간 포인트 시즌2.

4월 둘째 주 《눈치 보면서 스텝 밟기》

SK증권 자산전략부

채권전략. 윤원태 3773-8919, yunwt@sks.co.kr
주식전략. 강재현 3773-9922, jaehyun.kang@sks.co.kr
경제환율. 류진이 3773-9226, jinleecon@sks.co.kr
R.A. 박유진 3773-9938, youjin.park@sks.co.kr
R.A. 원유승 3773-9181, ys.won@sks.co.k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 3 주간 Check Point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경제/금리

연준은 CPI보다 PCE. 4월말 PCE 물가지표 확인까지 매크로 환경의 부담 지속

- 3월 CPI 예상치 상회. 경기비민감 항목들이 물가 추가 둔화를 제한하는 모습. 이에 더딘 Last mile 과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 극대화
- 다만 연준의 물가 목표는 CORE PCE 상승률로, 이는 2월 2.45%까지 하락. 4월말 발표되는 PCE 물가지표에서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연내 인하(혹은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을 듯
- 당분간 연준의 매파적 발언들을 소화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스탠스는 물가로 인해 신중한 태도 유지하고 있으나 고용 둔화 시그널 나 타날 경우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 실업률 4%선에 가까워지며 연준은 양대책무 중 점차 완전고용에 무게를 두게 될 것
- 11월 미 대선 스케줄 고려 시 9월이나 11월 인하 개시는 부담. 7월 인하 개시 이후 12월 추가 인하로 연내 2차례 인하 전망으로 뷰 수정
- 미국채 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3회에서 2회로 re-pricing 하며 연고점 갱신. 단기적인 매크로 이벤트 부재한 상황에서 '밀리면 사자' 세력 등장하며 금리 하락할 것으로 전망

주식 전략

무사히 넘겼다면 이제는 실적이다. 이익 모멘텀으로 가자

-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힘을 쓰지 못했고 CPI도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로 외국인 자금 유입되며 선방. 외국인들은 시장이 빠질 때를 기회 삼아 국내 증시의 이익 모멘텀이 양호한 업종들을 강하게 매수
- 결국 부담스러운 이벤트는 지나갔다는 점이 핵심인 듯. PCE 물가는 CPI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연준의 로직이 있고(노동 공급의 증가와 임금 상승률의 둔화) 이제는 경기 개선에 힘입어 실적 모멘텀이 주목 받을 수 있을 때이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와 같은 액션을 취했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4월 이후 프리뷰 시즌이 접어들면서 연간 및 1분기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된 업종들에 주목. 탑다운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기 어렵다고 하면 이익 모멘텀을 더 강하게 믿게 될 것. 그래서 이 업종들이 이번 실적 시즌의 주인공이 될 것으로 생각. 여기에는 자동차, 반도체, IT하드웨어, 기계, 증권, 비철금속이 있음



Part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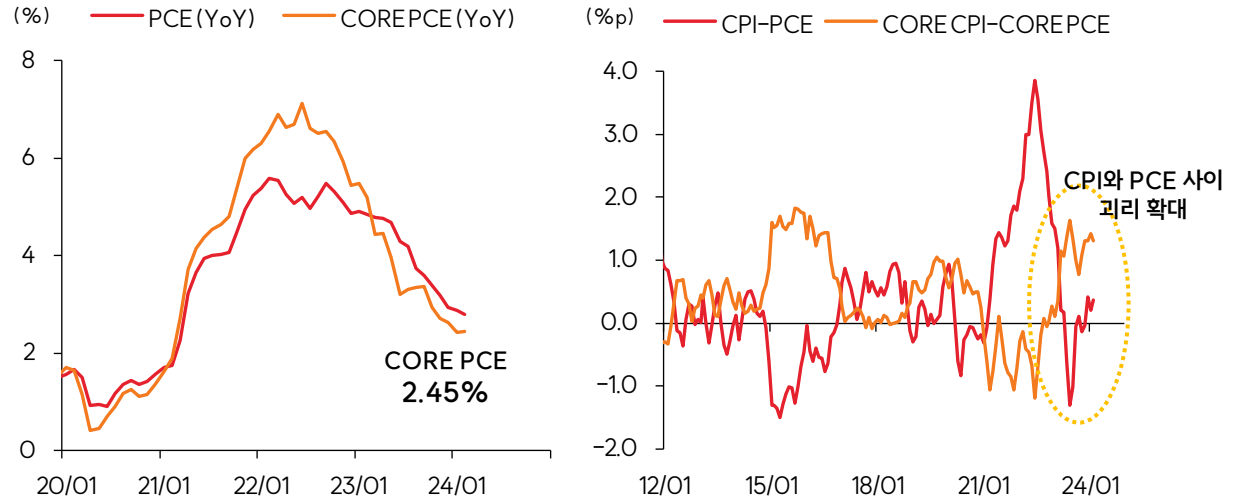
3월 CPI, 경기비민감 항목들이 불편하게 남아있지만...

- 경기비민감 항목들(자동차 보험, 메디컬 케어 서비스)이 디스인플레이션에 장애 요소
 - 3월 CPI 예상치 상회한 가운데 가솔린 가격과 주거비 물가에 더해 자동차 보험과 메디컬 케어 서비스 물가가 서프라이즈를 견인
 - 후자의 두 항목은 금리 인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기비민감적 요소임을 고려하면 올해 추가 물가 둔화에 걸림돌도 작용할 듯
- 하지만 연준은 CPI가 아니라 PCE 물가를 타겟팅한다 2월 CORE PCE 상승률은 2.45%로 인상보다는 인하가 적절
 - 미 연준은 3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CORE PCE 물가 2.6%, 실업률 4.0%의 환경에서 연내 3회 인하를 전망. 이미 CORE PCE가 2.45%까지 하락한 상황이라면 연내 3회는 무리더라도 2회 인하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실업률이 4%대에 다가가면서 연준은 점차 물가보다 완전고용의 책무에 무게를 두기 시작할 것. 4월말 발표될 3월 PCE 물가 발표가 관건
 - 11월 미 대선 스케줄 고려 시 9월이나 11월 인하 개시는 부담. 7월 인하 개시 이후 12월 추가 인하로 연내 2차례 인하 전망으로 뷰 수정

CPI 내 자동차 보험과 메디컬 케어 서비스 비용 상승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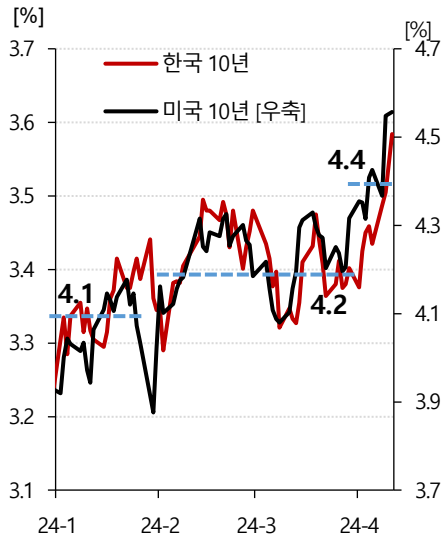
연준의 물가 목표는 PCE 기준. 최근 CPI와 PCE 사이 괴리 확대되고 있음



금통위 이후 한-미 채권시장 색깔 차별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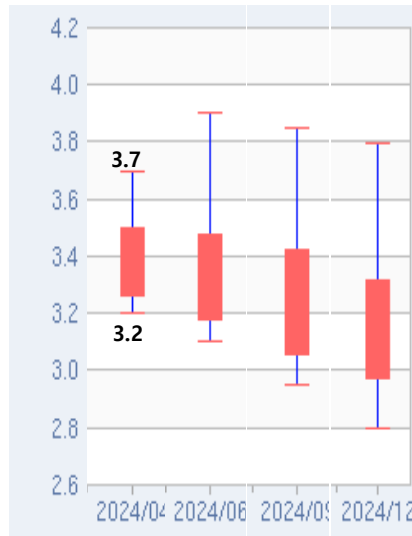
- 장기적 관점에서 포지션을 구축하려는 투자자의 '밀리면 사자' 성격의 대기 매수 수요가 금리 상단을 제어
 - 미국채 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3회에서 2회로 re-pricing 하며 연고점 갱신. 미국채 10년물 4.6%레벨에서 단기적 저항 있을 것
 - 차주 단기적인 매크로 이벤트 부재한 상황에서 '밀리면 사자' 세력 등장하며 금리 되돌림 나타날 전망
 - 4월 한국은행 금통위는 만장일치 동결 예상. 7월 인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환율과 부동산 가격 상승(가계부채 증가) 우려를 고민할 것으로 예상.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와 다르게 한국은행 금통위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
 - 4월 총선 결과는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총선 이후 '4월 위기설'도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예상

한-미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 인포맥스, SK증권
*점선 : 미국채 월평균 금리

한국 국고채 10년 컨센서스(인포맥스)



자료 : 인포맥스, SK증권
*국내 10개 증권사 컨센서스

Fed Watch의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 - 6월에서 9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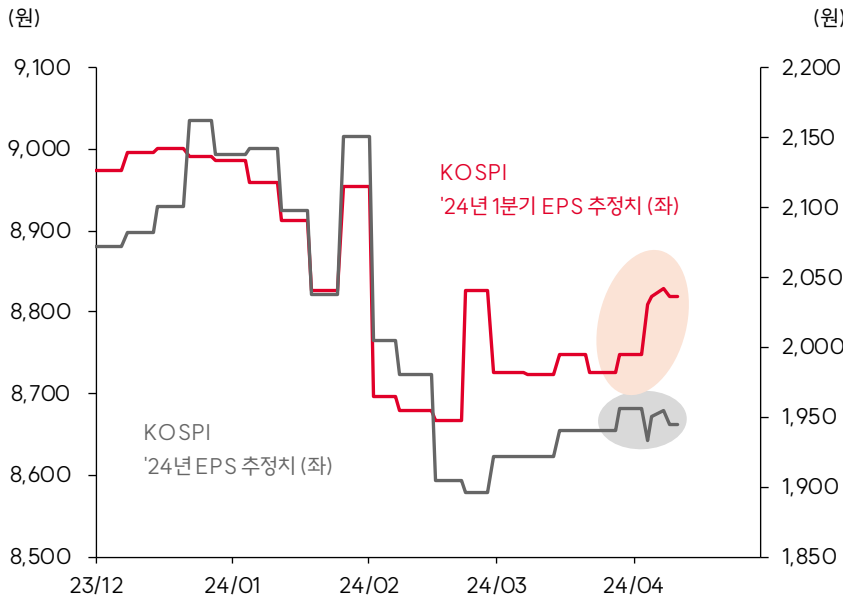
MEETING DATE	400-425	425-450	450-475	475-500	500-525	525-550
2024-05-01	0.0%	0.0%	0.0%	0.0%	3.9%	96.1%
2024-06-12	0.0%	0.0%	0.0%	0.5%	16.4%	83.1%
2024-07-31	0.0%	0.0%	0.2%	5.6%	37.8%	56.5%
2024-09-18	0.0%	0.1%	2.5%	19.1%	45.6%	32.7%
2024-11-07	0.0%	0.6%	6.4%	25.4%	42.5%	24.9%
2024-12-18	0.3%	3.5%	15.8%	33.8%	33.9%	12.7%
2025-01-29	1.3%	7.4%	21.6%	33.9%	27.1%	8.6%
2025-03-19	4.1%	13.8%	27.1%	30.8%	18.8%	4.7%
2025-04-30	6.7%	17.4%	28.1%	27.6%	15.0%	3.5%

자료 : FED WATCH, SK증권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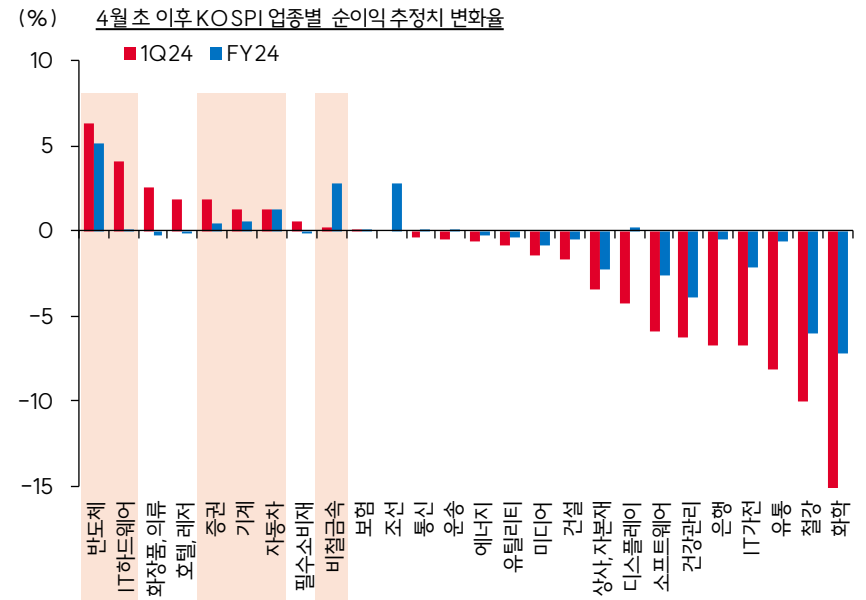
- **총선과 CPI 서프라이즈, 외국인 덕에 선방**
 - 총선과 CPI 이벤트를 생각보다 무사히 넘겼음. 사실 총선보다는 CPI 서프라이즈로 인하 기대가 밀린 것이 국내 증시에는 타격이 클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외국인 코스피를 1조 넘게 샀다는 것은 '글로벌 금리 인하 시작'만 보고 국내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방증했다고 판단
- **이제는 실적 시즌! 연간/분기 이익 모멘텀 모두 유효한 업종에 주목**
 - 그리고 오늘 상대 성과가 좋았던 업종에서 1분기 실적 시즌 시장의 모습을 미리 그려 볼 수 있었음. 어쨌든 매크로 환경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이익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 있는 업종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었고 낙폭을 만회하는 힘이 컸음. 이제 남은 주식시장이 마주할 대형 이벤트가 1분기 실적 시즌이기에 이를 참고해 보면 좋을 듯. 1분기 프리뷰 시즌에 접어들면서 '24년 연간 전체와 1분기 이익 추정치 변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종에는 반도체, IT하드웨어, 증권, 기계, 자동차, 비철금속이 있음

KOSPI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그저 그렇지만, 연간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



자료 : Quantiwise, SK증권

1분기+연간 모두 실적 모멘텀 유효한 업종에 주목



자료 : Quantiwise, SK증권



Part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Macro Core 3 Point

- Core Point 1: 미국 3월 CPI, 서프라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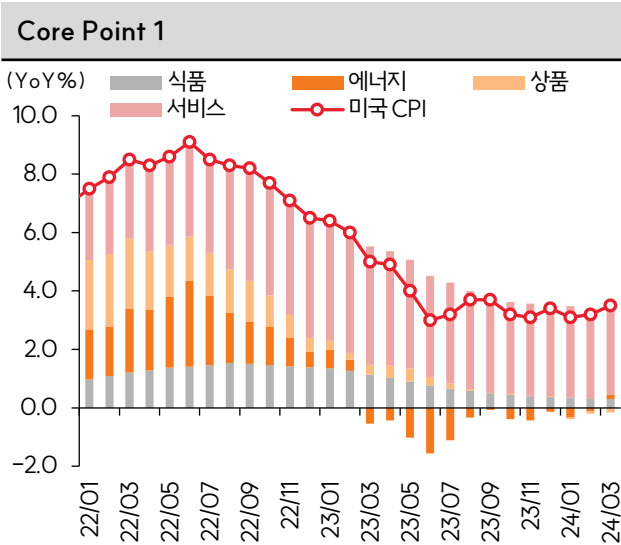
- 미국 3월 CPI, YoY 기준 +3.5%로 예상 및 전월 크게 상회. MoM으로도 +0.4% 기록하며 예상 및 전월 상회. 6월 금리 인하 전망은 빠르게 후퇴. CME Fed Watch 기준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81%로 발표 전 42.6%에서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

- Core Point 2: 미국 3월 PPI, 전월 대비 상승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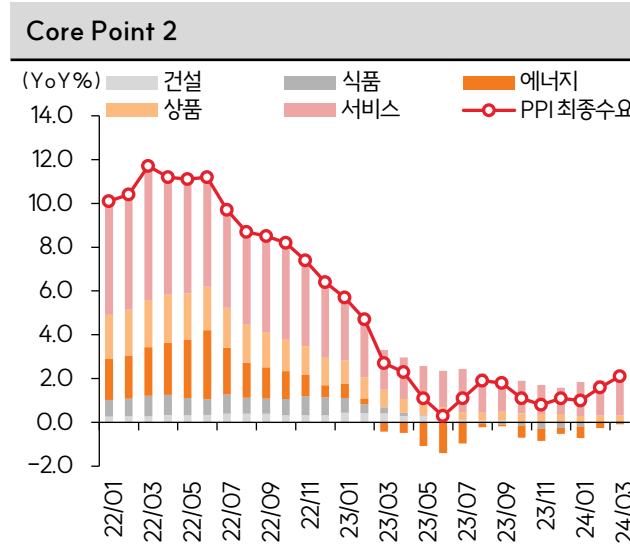
- 미국 3월 PPI, MoM 기준 +0.2%로 예상(+0.3%) 및 전월(+0.6%) 하회. YoY 기준으로는 2.1% 상승. 휘발유 가격이 3.6% 하락한 점이 전체 지수 하락 이끌어. 서프라이즈를 보였던 3월 CPI와는 대조적인 모습

- Core Point 3: 4월 ECB 통화정책회의, 금리 동결했지만 6월 인하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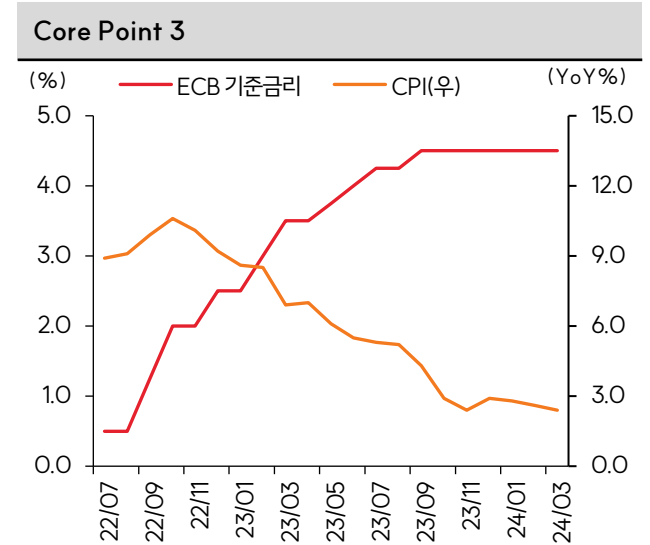
-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수신금리 4.50%로 5회 연속 동결. 성명서에서 '인플레 2% 목표 수렴 확신이 생기면 현 통화정책 제약 수준을 줄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처음 금리 가능성 언급. 또한 라가르드 총재는 'ECB는 연준에 종속되지 않았다'며 통화정책의 독립성 강조



자료 : Bloomberg, SK증권



자료 : Bloomberg,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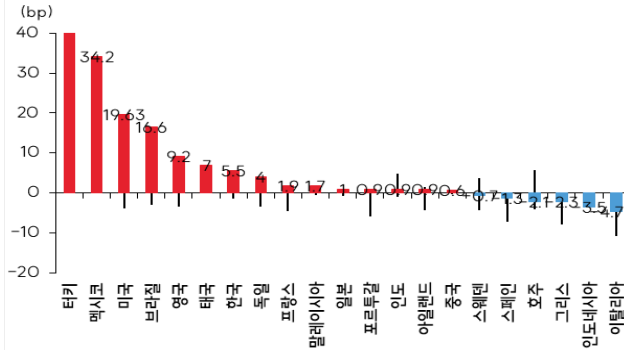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2. FICC Core 3 Point

- 주간 글로벌 금리는 상승.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3월 CPI 서프라이즈로 인해 15bp 급등하며 4.5% 돌파
- 유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임박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언급으로 지정학 위험이 증대되어 WTI 기준 85달러 유지. 환율은 미국 물가 지표 급등에 의한 달러 강세의 영향을 받아 연고점 수준인 1360원대 기록

금리

1) 글로벌 금리 주간 상승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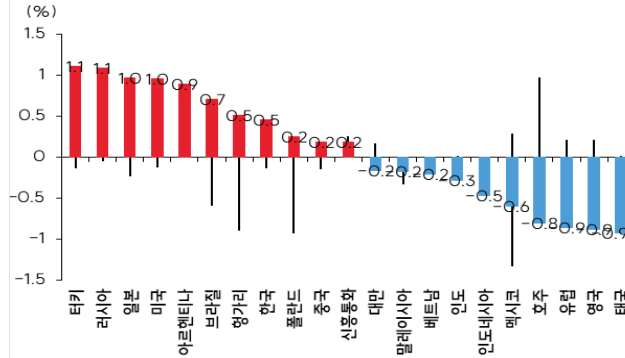
2)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료 : Bloomberg, SK증권

환율

1) 글로벌 달러대비 주간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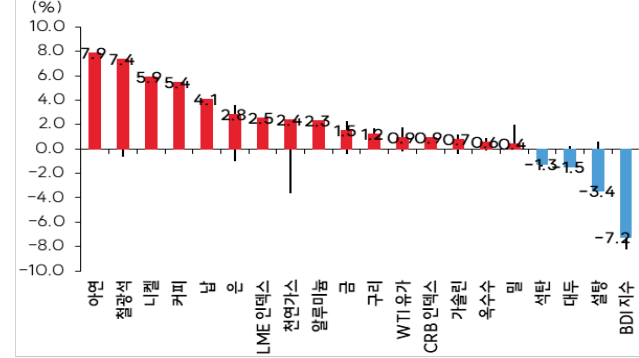
2)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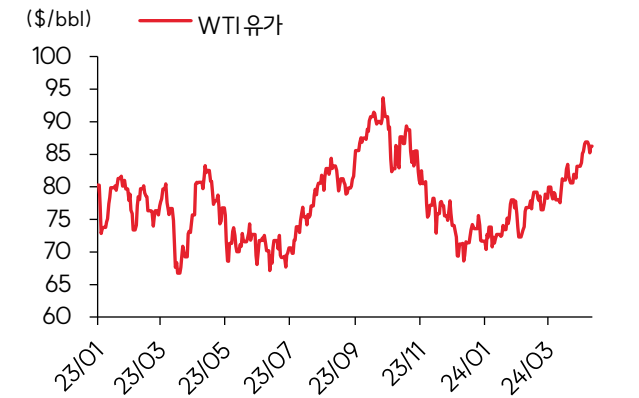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원자재

1) 주요 원자재 주간 상승률



2) 국제유가 변동(WTI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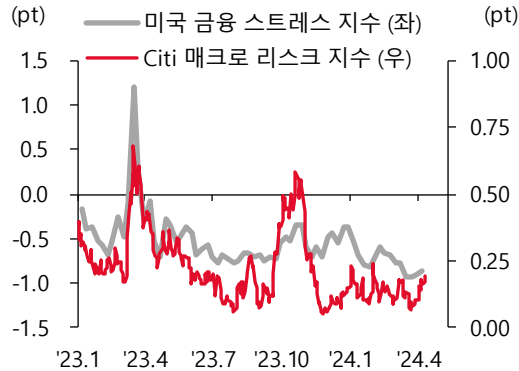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3. 위험과 자산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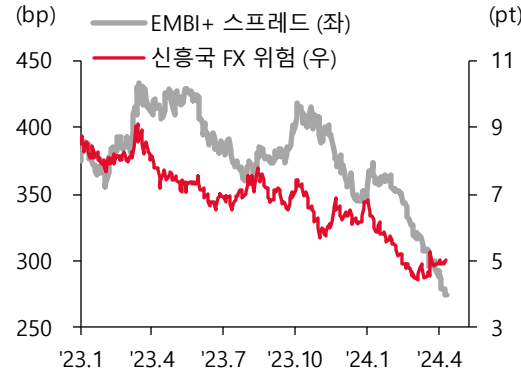
- Citi 매크로 리스크 지수가 소폭 상승. 다만 금융 스트레스 지수와 함께 봤을 때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위험 상승을 크게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물가 서프라이즈에 따른 금리 상승 위험 정도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
- 주식시장 조정이 있었으나 EMBI+ 스프레드, 하이일드 스프레드 등이 안정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위험 회피 심리 특별히 커지지는 않았음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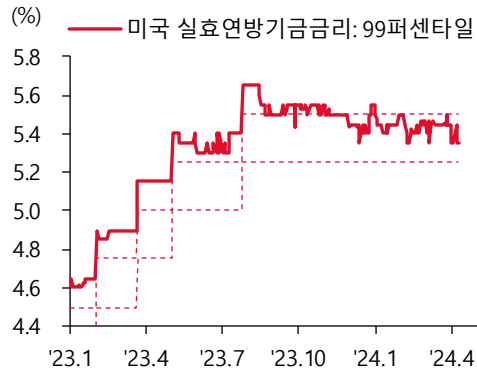
(1)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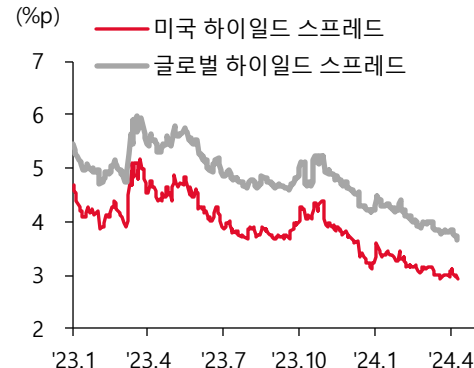
(2) 신흥국



(3) 단기자금시장



(4) 신용



자산가격

(1) 금리 vs 주식



(2) 원자재 vs 달러



4. 글로벌 주식시장: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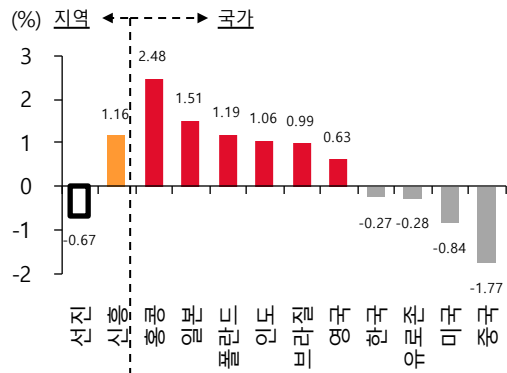
- 수요일까지는 선진 증시가 신흥 증시를 언더퍼폼. 국가별로 보면 폴란드, 인도, 브라질이 크게 상승
- 미국 증시에서는 CPI 서프라이즈로 금리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섹터가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 금리 인하 기대가 뒤로 밀리다 보니 금융, 산업재, 소재 등 경기민감 업종도 약세. 스타일 상 로우볼, 퀄리티가 선방하는 모습

주식: 지역/국가

(1) 글로벌 증시 추이 및 선진 vs 신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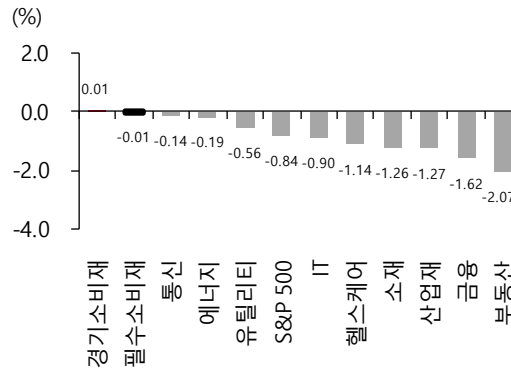


(2) 국가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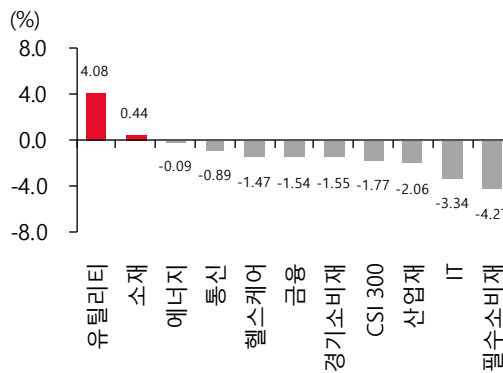


주식: 섹터

(1) 미국 S&P 5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2) 중국 CSI 3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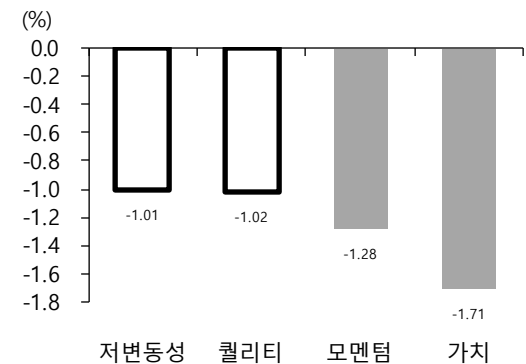


주식: 스타일

(1) 미국 및 신흥 증시: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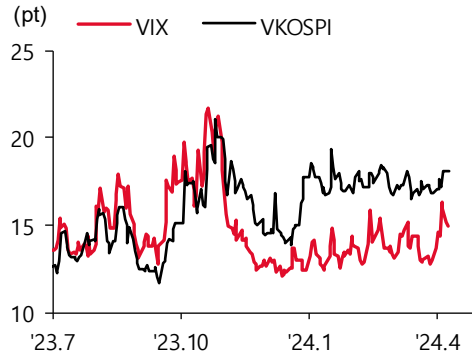


5. 글로벌 주식시장: 심리와 기술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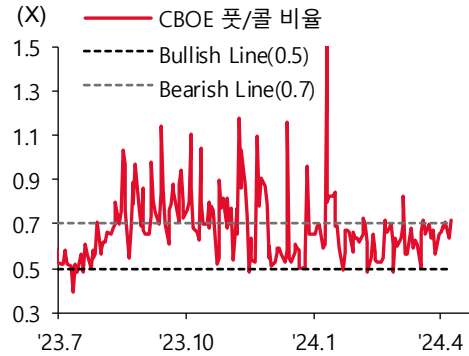
- 최근 매크로 지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VIX 지수 15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 보이기도. 이렇듯 증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풋/콜 비율도 bearish line 근접
- 증시 조정 받으면서 미국과 국내 증시 모두 과열과는 거리가 멀어졌음

심리 지표

(1) 변동성 지수: 미국 vs 한국



(2) 미국 개별 주식 옵션 거래 비율



(3) 미국 액티브 매니저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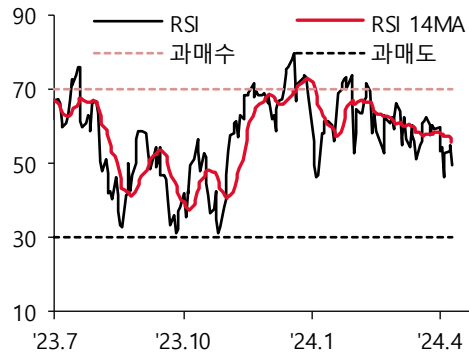


기술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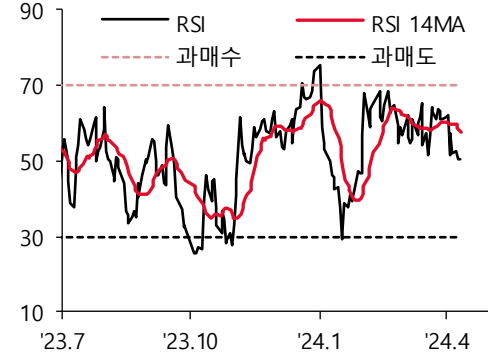
(1) RSI: 미국 S&P 500



(2) RSI: 미국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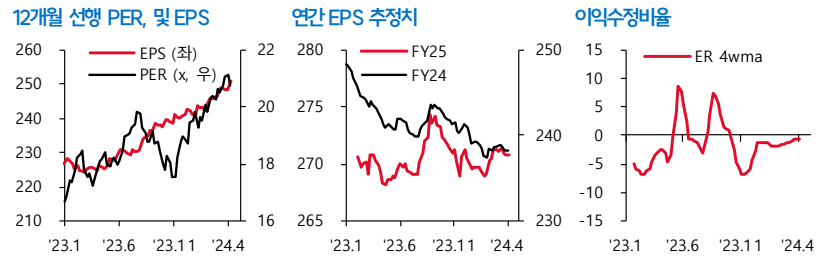
(3) RSI: 한국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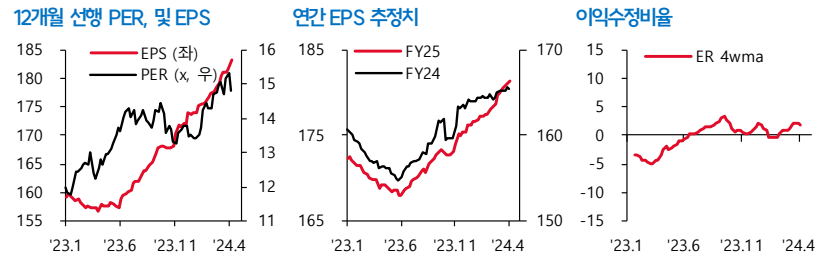
6. 글로벌 주식시장: 이익과 밸류에이션

- 현재 '24년 및 '25년 EPS 추정치가 확실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 중국은 3월 중순 이후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음
- KOSPI 이익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참고로 퀀티와이즈 추정은 이와는 약간 다른 양상이기는 함(최근 추정치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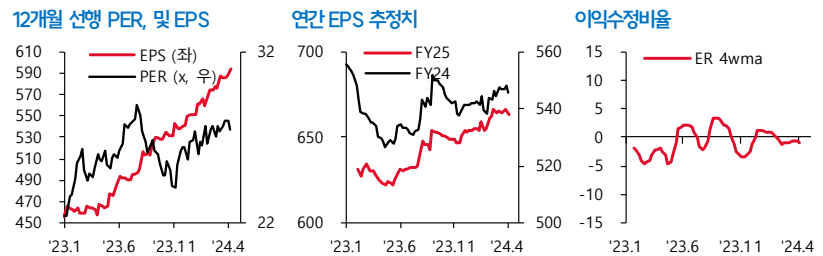
미국 S&P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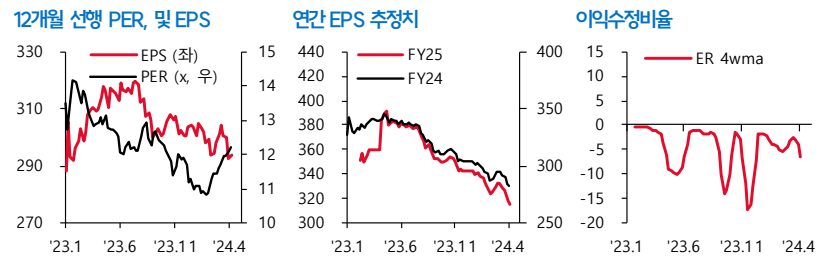
일본 TOP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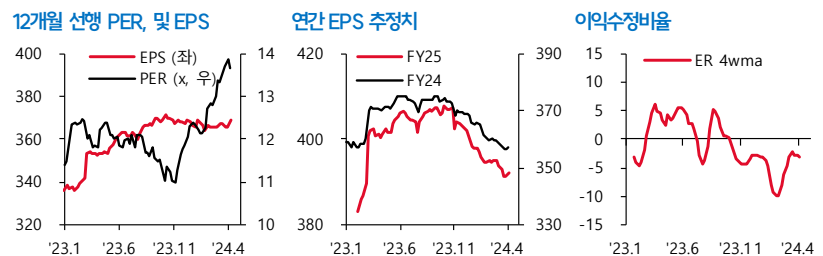
미국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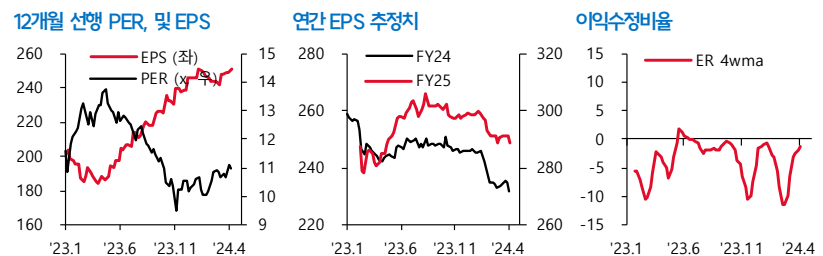
중국 CSI 300



유로존 Stoxx 50



한국 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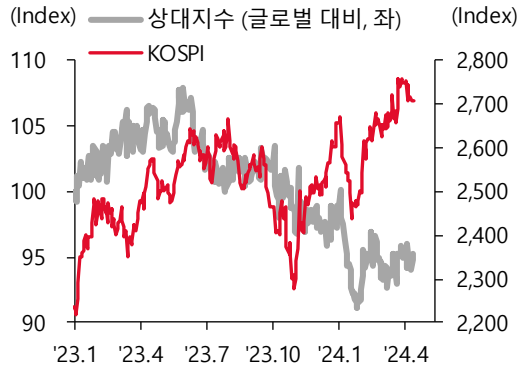


7. 국내 주식시장: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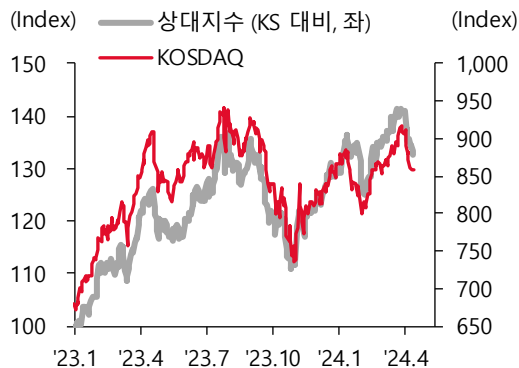
- KOSPI 지수는 전주 대비 약보합으로 마무리. 총선에서 여당의 패배와 미국 CPI 서프라이즈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 약화로 증시 낙폭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외국인 자금 유입되며 선방. 다만 KOSDAQ 지수는 2차전지 약세와 투자 심리 약화로 KOSPI 대비 부진 이어졌음
- 금리 상승 부담 속 이익 모멘텀도 받쳐주지 못하는 일부 성장 스타일의 업종들이 시장 대비 언더퍼폼. 자동차, 비철금속, 기계 등 이익 모멘텀 양호한 업종 상승

시장

(1) KOSPI 지수 (+ 글로벌 증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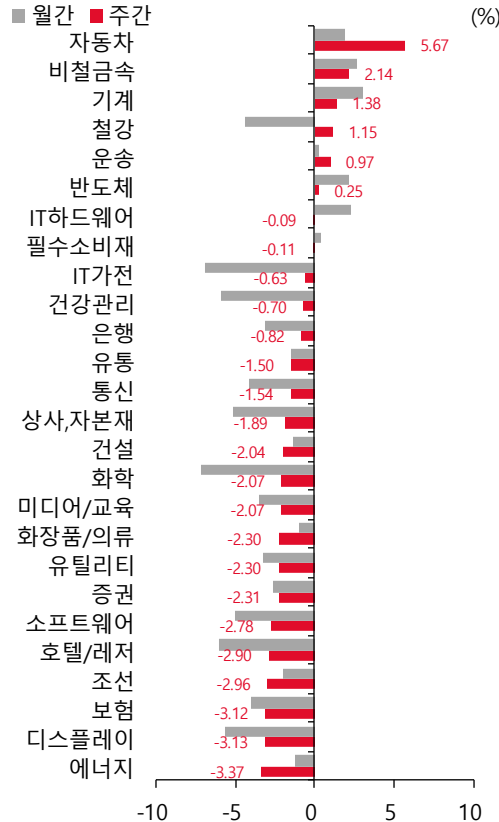


(2) KOSDAQ 지수 (+ KOSPI 지수 대비)



섹터

KOSPI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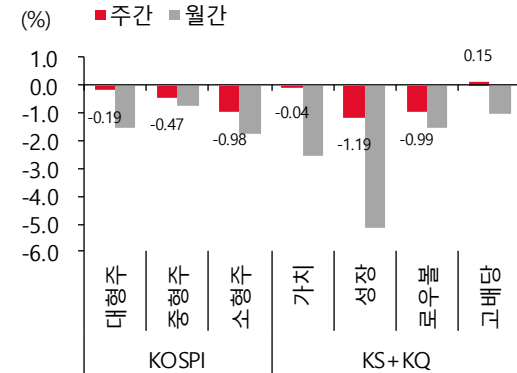


스타일

(1)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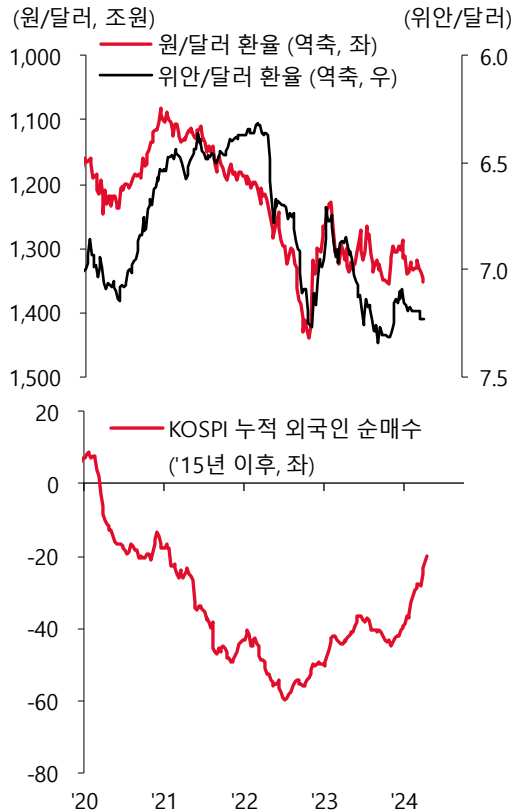


8. 국내 주식시장: 수급

- 금주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총선이 중요 이벤트로 많이 다루어졌으나 정작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여당 약세 보일 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업종들의 대폭 약세가 예상되었고 총선 직후 실제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결국 그 가운데서도 실적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ex. 자동차)으로는 외국인 수급 강력하게 유입되며 재차 상승. 금주에는 대형 이벤트를 염두에 둔 기관의 매도세가 강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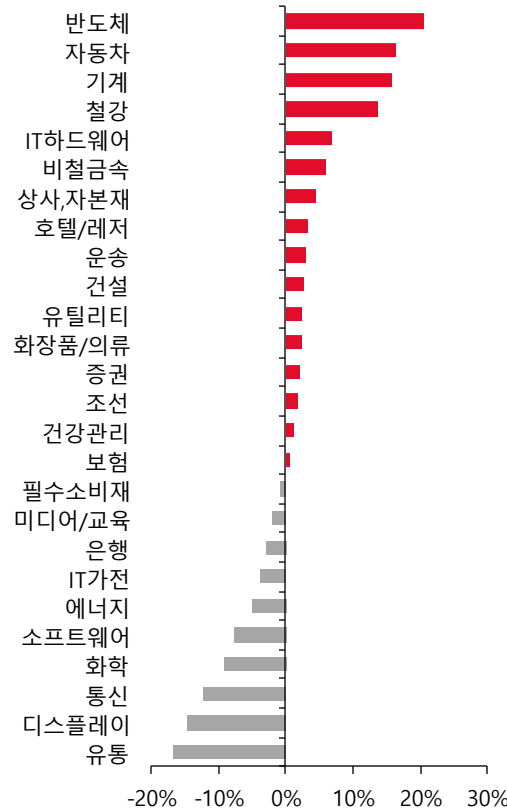
수급: 시장

KOSPI 외국인 순매수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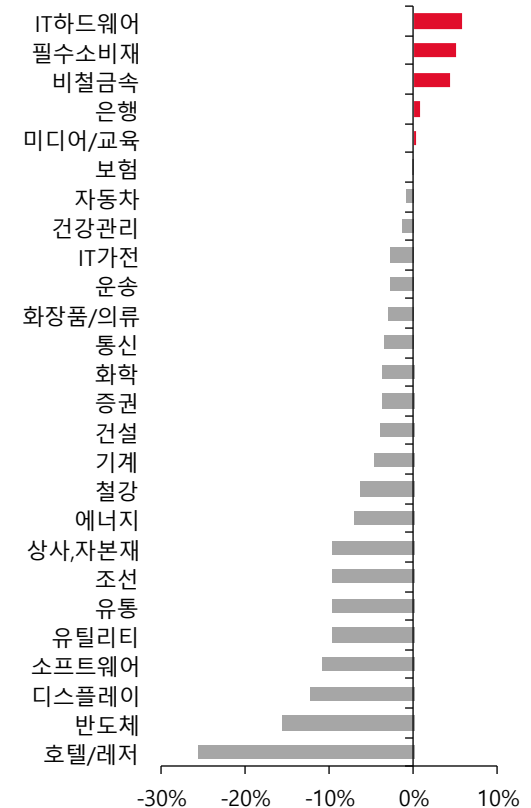


수급: 섹터

1) 주간 KOSPI 섹터별 외국인 순매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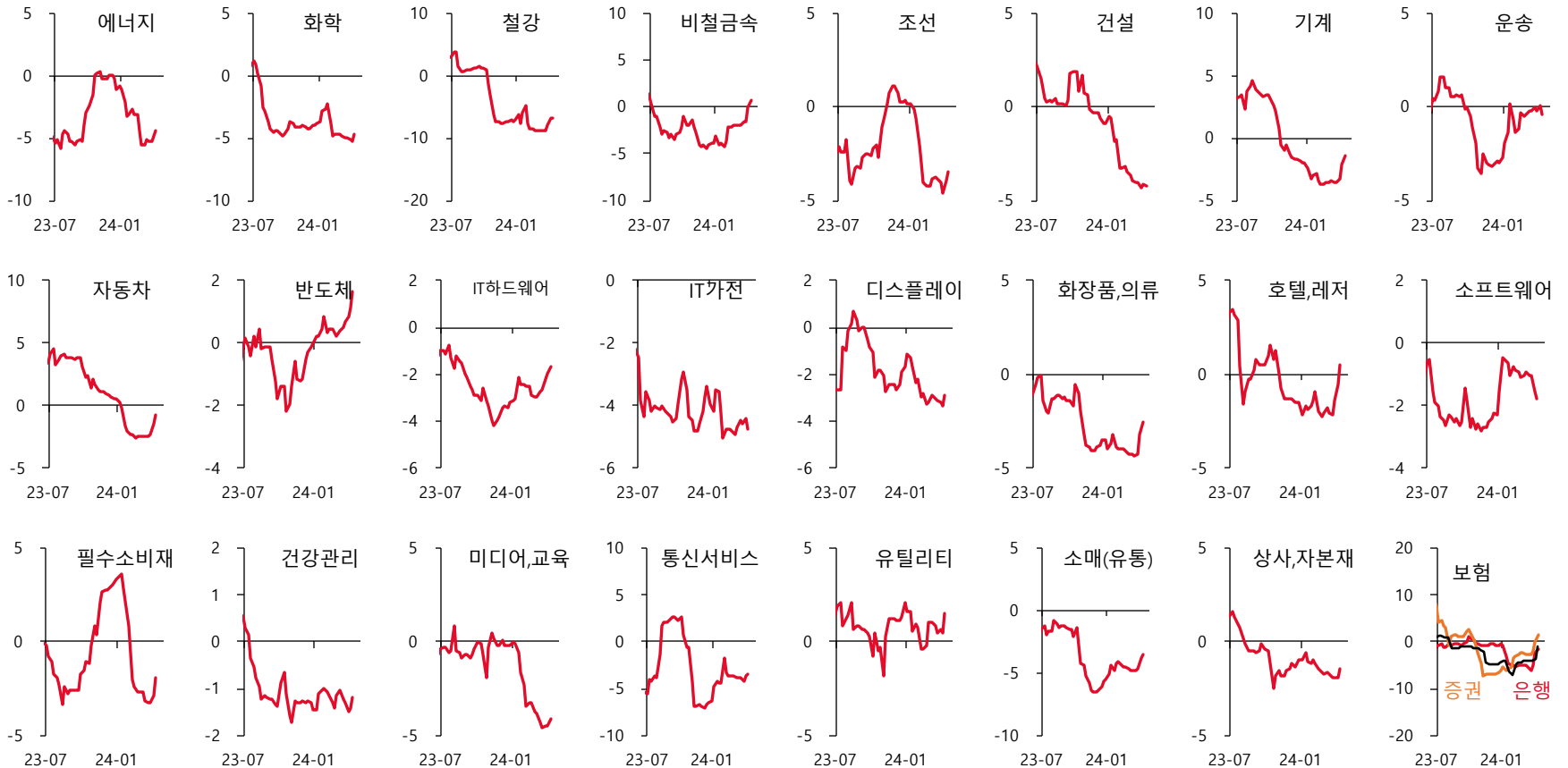
2) 주간 KOSPI 섹터별 기관 순매수 강도



9. 국내 주식시장: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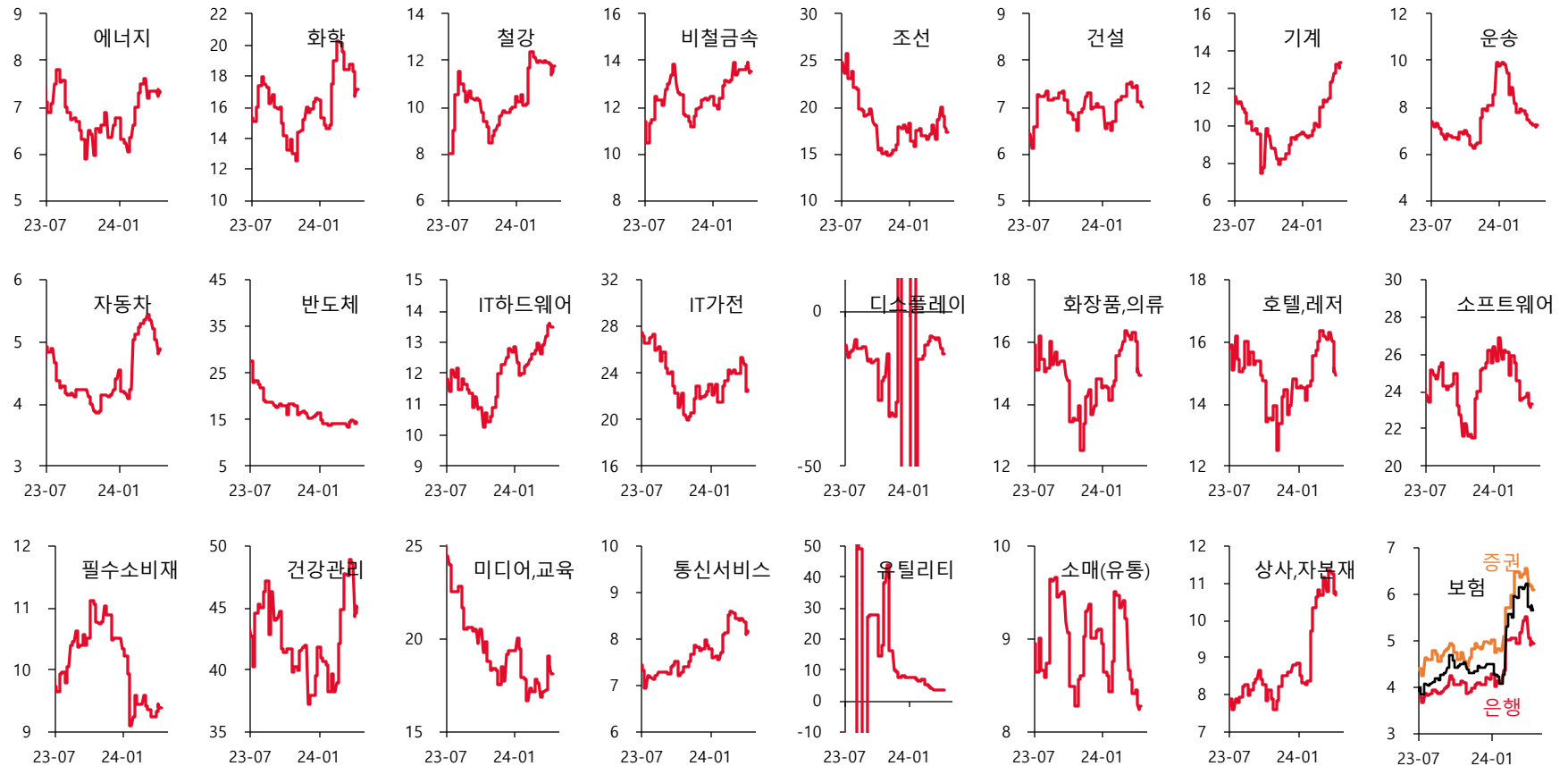
- 비철금속 업종의 이익수정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결국 (+)권으로 진입. 호텔/레저, 증권은 최근 이익 모멘텀 급등하며 (+) 전환
- 이익수정비율이 아직 (-)권에 있는 업종 가운데서는 에너지, 철강, 기계, 자동차, IT하드웨어, 화장품/의류, 필수소비재, 유통의 반등이 눈에 띈
- 종합하면 건설, IT가전,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등 일부 업종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는 모습 관찰되고 있다는 것

KOSPI 섹터별 이익수정비율 (%)



10-1.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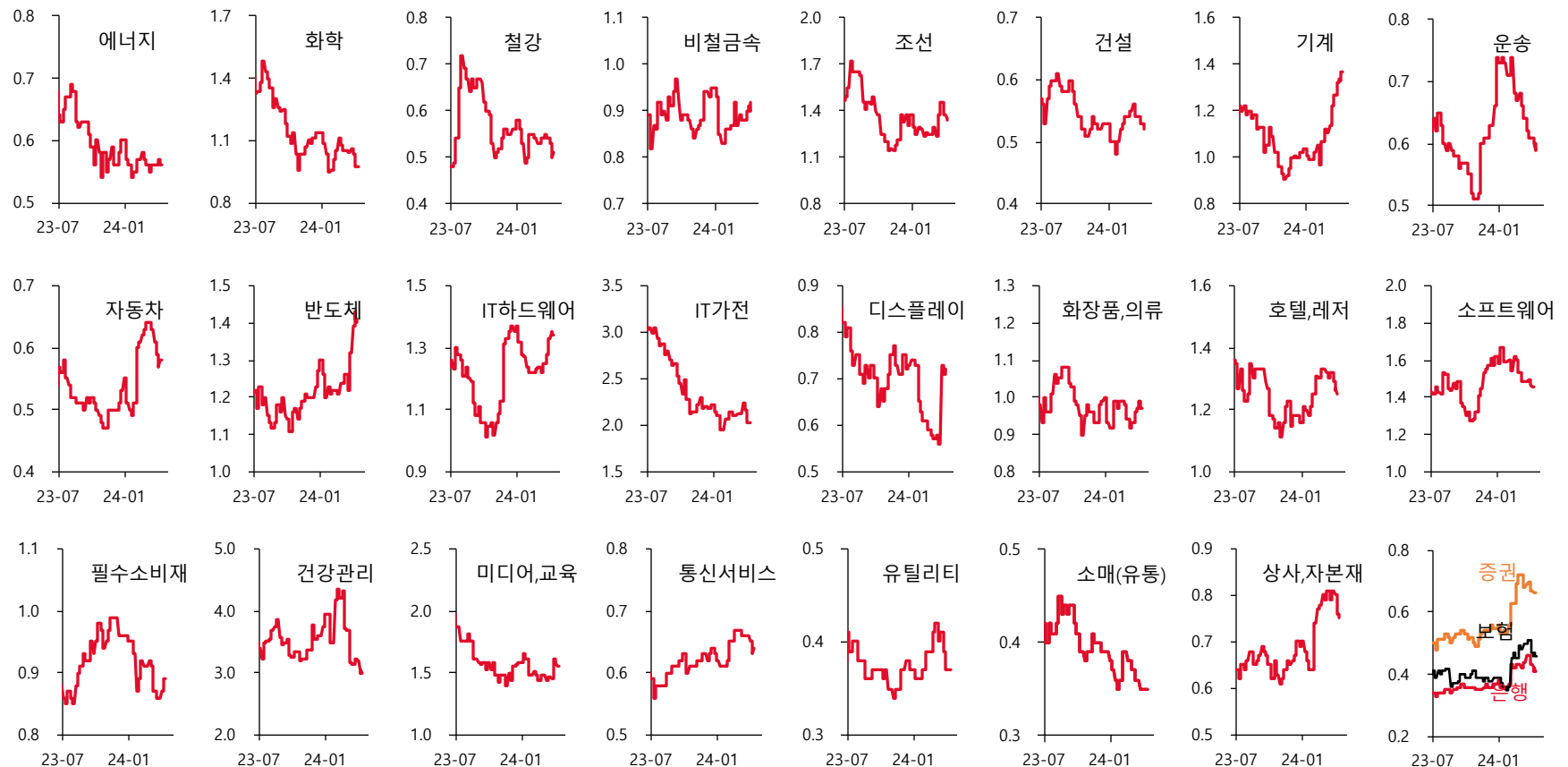
KOSPI 섹터별 12MF PER (X)



10-2.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 기계 업종의 PBR은 '22년 고점 수준 상향 돌파 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중. 국내에 몇 없는 구조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손꼽히기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동차, 금융 업종의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단기간 높아졌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

KOSPI 섹터별 12MF PBR (X)



11. 국내 주식시장: 종목

- 금주 이익 모멘텀 상위 종목에서는 기계, 방산 업종 내 종목들이 다수 포진
- 이익 모멘텀 랭킹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현대차와 LIG넥스원,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달 내내 좋은 성과 기록하는 중. 특히 금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선호했던 현대로템과 LS ELECTRIC이 대폭 상승. 풍산도 같은 부류. 이익 모멘텀은 좋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이 모두 높은 데도 성과 부진했던 종목에는 CJ대한통운과 삼성전기가 있음

KOSPI 200 주간 종목 동향: 이익 모멘텀 상위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시총 (조원)	12m fwd. EPS (x)	투자의견	목표주가 (원)		이익수정비율 (%)		주가 수익률 (%)			수급주체별 주간 순매수강도: 코스피 종목 내 백분율 (높을수록 수급 강함)		
							현재	-1W	현재	-1W	1W	1M	YTD	외국인	기관	개인
1	A000210	DL	화학	1.09	6.8	매수	70,000	68,333	50.0	33.3	-1.7	13.2	1.0	49%	72%	39%
2	A064350	현대로템	기계	4.57	16.96	매수	42,885	42,192	35.7	35.7	8.7	33.9	57.3	98%	96%	2%
3	A005930	삼성전자	반도체	502.06	16.6	매수	101,400	101,400	48.0	48.0	-1.4	16.2	7.1	100%	0%	1%
4	A006260	LS	기계	3.70	8.28	매수	130,833	130,833	33.3	33.3	4.8	18.1	23.3	9%	90%	82%
5	A010120	LS ELECTRIC	기계	3.83	16.08	매수	115,200	115,200	10.0	10.0	20.3	57.2	74.2	74%	94%	6%
6	A005380	현대차	자동차	50.98	5.36	매수	301,364	301,364	28.6	28.6	6.6	-1.0	18.4	99%	8%	0%
7	A079550	LIG넥스원	상사, 자본재	3.66	17.27	매수	178,353	173,353	0.0	-5.9	-4.7	-6.5	27.4	95%	7%	50%
8	A01245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사, 자본재	10.83	17.74	매수	243,286	241,000	7.1	7.1	-9.3	10.9	71.9	96%	9%	13%
9	A028260	삼성물산	상사, 자본재	27.28	11.42	매수	196,857	193,500	16.7	14.3	-3.1	-12.6	13.5	95%	3%	79%
10	A000150	두산	상사, 자본재	2.51	15.26	매수	178,750	178,750	0.0	0.0	2.8	39.3	61.7	35%	96%	6%
11	A000120	CJ대한통운	운송	2.81	9.59	매수	172,091	172,091	27.3	27.3	5.0	0.1	-3.1	78%	89%	8%
12	A011780	금호석유	화학	3.52	9.12	매수	177,636	177,636	18.2	18.2	-5.2	-9.8	-7.2	63%	14%	90%
13	A259960	크래프톤	소프트웨어	11.97	17.57	매수	290,250	286,500	10.0	10.0	-2.2	6.5	27.8	93%	8%	12%
14	A009150	삼성전기	IT하드웨어	11.69	17.78	매수	186,263	186,263	31.6	31.6	0.7	16.3	2.2	15%	98%	5%
15	A103140	풍산	비철, 목재등	1.67	8.8	매수	57,385	57,385	7.7	7.7	12.1	24.0	51.8	85%	91%	9%
16	A016360	삼성증권	증권	3.34	5.21	매수	49,000	48,733	15.4	14.3	-4.0	-5.9	-2.7	26%	24%	81%
17	A020150	롯데에너지머티리얼	IT하드웨어	2.15	48.66	매수	54,143	54,625	0.0	0.0	-2.8	23.0	10.8	18%	81%	64%
18	A039490	키움증권	증권	3.24	4.84	매수	143,000	143,000	8.3	8.3	1.1	-0.7	24.3	87%	36%	19%
19	A002380	KCC	건설, 건축관련	2.15	9.57	매수	350,000	350,000	0.0	0.0	-5.8	-13.0	5.9	89%	15%	66%
20	A138040	메리츠금융지주	증권	16.41	6.94	매수	99,000	99,000	0.0	0.0	-2.3	-0.9	36.6	24%	87%	25%

주: 코스피 200 지수 내 투자 의견 중립 이상 종목 중 1. 이익수정비율(1M) 레벨 높고, 2. 이익수정비율(1M) 전주대비 개선된 폭 높고, 3. 목표주가 상향률(1M) 높은 종목 순)

자료: SK증권



Part 3.

**주간
Check Poin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주간 경제 캘린더

일자	주요 지표 및 일정	실제	예상	이전
4/8 (월)	독일 무역수지(십억유로) (2월)	21.4		27.5
	독일 산업생산(MoM%) (2월)	2.1		1.0
	일정	실적		
4/9 (화)				
	일정	실적		
4/10 (수)	미국 소비자물가·근원소비자물가(YoY%) (3월)	3.5 3.8	3.4 3.7	3.2 3.8
	일정 미국 FOMC 의사록, 한국 총선	실적	델타 항공	
4/11 (목)	미국 생산자물가·근원생산자물가(YoY%) (3월)	2.1 2.4	2.2 2.3	1.6 2.0
	중국 소비자물가(YoY%) (3월)	0.1	0.4	0.7
	중국 생산자물가(YoY%) (3월)	-2.8	-2.8	-2.7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 (%) (4월)	4.50	4.50	4.50
	일정 유로존 ECB 통화정책회의	실적	블랙록,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4/12 (금)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잠) (pt) (4월)		80.0	79.4
	미국 미시간대 5년 기대인플레이(잠) (%) (4월)			2.8
	중국 수출(YoY%) (3월)		-2.0	7.1
	일본 산업생산(확) (MoM%) (2월)			-0.1
	독일 소비자물가(확) (YoY%) (3월)		2.2	2.2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 (4월)		3.50	3.50
	한국 실업률 (%) (3월)			2.6
일정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실적	JP모건, 웰스파고, 씨티그룹, 스테이트 스트리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일자	주요 지표 및 일정(예정)	예상	이전
4/15 (월)	미국 소매판매·근원 소매판매 (MoM%) (3월)	0.3 0.4	0.6 0.3
	미국 뉴욕 제조업 (pt) (4월)	-7.0	-20.9
	중국 MLF 1년물 금리 (%) (4월)	2.50	2.50
	유로존 산업생산 (MoM%) (2월)		-3.2
일정		실적	찰스슈왑, M&T 은행
4/16 (화)	미국 산업생산·제조업생산 (MoM%) (3월)	0.4 -	0.1 0.8
	미국 건축허가·주택착공(백만건) (3월)	1.510 1.480	1.524 1.521
	중국 GDP (YoY%) (1Q)	5.0	5.2
	중국 산업생산·소매판매 (YoY%) (3월)	6.0 5.0	7.0 5.5
	중국 실업률 (%) (3월)	5.2	5.3
	독일 ZEW 경기기대 (pt) (4월)		31.7
일정		실적	BofA,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항공, 컨템포러리 엠퍼, US뱅크, PNC파이낸셜, 뉴욕멜론 은행
4/17 (수)	유로존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YoY%) (3월)		2.4 2.9
	일본 수출 (YoY%) (3월)		7.8
	영국 소비자물가·근원 소비자물가(YoY%) (3월)		3.4 4.5
	일정 연준 베이지북	실적	ASML, 애봇, 프로그레시브, CSX, 볼보, 에퀴팩스
4/18 (목)	미국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pt) (4월)	-1.5	3.2
	미국 기존주택판매 (백만건) (3월)	4.10	4.38
	미국 CB 경기선행 (pt) (3월)	-0.1	0.1
	일정	실적	TSMC, 넷플릭스, 인투이티브, 아메리칸 항공, 블랙스톤, 엘리멘스 헬스, ABB, 인포시스
4/19 (금)	일본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YoY%) (3월)		2.8 2.8
	일정	실적	P&G, 아메리칸 익스프레스